Entertainment p/20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제2623호

대형마트 月2회 수요 휴무

NEWS p/02

보험특약 끼워넣기 손본다

NEWS p/03

Entertainment p/18
3연속 히트 '문채원 시대'

메트로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제262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8

박종우 동메달 유지 파란불

"연말연시 술 적당히 드세요" 슈퍼맨도 헐크도 '떡실신'

떡은 영웅이 될 순 없지만 영웅은 떡이 될 수 있다. 연말연시 과도한 음주로 '떡실신'한 슈퍼맨(왼쪽)과 헐크가 3일 지하철 2호선 객차 내 선반에 등장했다. 서울시는 건전음주캠페인 일환으로 이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다. /연합뉴스

사실상 '공짜폰'된 아이폰5

LTE가입자 확보하려 거액 보조금… 라이벌 갤스3 등도 파격할인 '고심'

3일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 '아이폰5' 예약 구매를 하던 김세연(28) 씨는 깜짝 놀랐다. 공식 출고가 81만4000원짜리 단말기가 사실상 공짜로 나왔기 때문이다. 16GB 제품을 6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번호 이동으로 가입할 경우 기기값은 안내도 된다는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단말기 값이 11만원대로 낮아 부담이 적다. 17만원 갤럭시S3보다 더 대박"이라며 "아이폰5와 갤럭시S3를 놓고 고민하는 친구가 적지 않은데 아이폰5 쪽으로 기울 것 같다"고 말했다.

7일 국내에 출시되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5'가 사실상 '공짜폰'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네티즌과 예비 아이폰5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QPR(박지성 소속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 첫 승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라며 잔뜩 고무된 상태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가 올해 마지막 LTE 가입자 확보 카드로 '아이폰5'를 지목하면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 '제값 주고 사야만 했던' 아이폰 시리즈의 전통이 깨졌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13만원을 공식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최소 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주고 있다. 여기에 약정 할인 혜택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이폰5 구매자는 평균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기기값으로 많아야 11만원가량을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모 이동사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서 자체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5가 추가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이폰5의 실구매가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도 주판알을 튕기기가 시작됐다. 브랜드 파워나 만족도, 품질, 가격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지향하는 아이폰5보다 비싸게 물건을 내놓을 경우 소비자들에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방통위는 과열경쟁 경고

일각에서는 17만원 갤럭시S3를 능가하는 프로모션이 등장할 것으로 점치는가 하면, 옵티머스G나 베가 R3는 되레 돈을 받고 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 당국이 개입 의사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의 마케팅 담당자를 불러 "보조금 과잉 지급 사례가 적발되면 강경 조치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현재까지는 일부 판매자가 아이폰5를 적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이폰5가 실제 개통되는 7일 이후 보조금이 가이드라인상 지급 한도인 27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sam@metroseoul.co.kr

安 '문재인 지지' 재확인

구체적인 돕기 방안 곧 발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4면>

문 후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제18대 선거를 보름여 앞둔 3일 안 전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부동층에 파장을 일으키며 선거 판세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는 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 지지자를 향해 "지난 23일 사퇴 선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 이제 단일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때 소극적 지지 선언으로 읽히며 혼란을 초래했다. 하지만 집회로 간주되는 해단식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의식한 안 전 후보가 표현을 자제했다는 해석이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안 전 후보가 최선을 다해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번 더 밝힌 것"이라며 "지지자들에는 분명하게 단일후보로서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남은 문제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이다"며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조만간 결정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문 후보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안 전 후보의 회견에 대해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안 후보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논평은 크게 엇갈렸다. 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된 이날 오전 박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지지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이미 상실했다"(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고 깎아내렸다.

캠프 해단식이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문 후보 지지 발언 수위가 낮자 "안 후보가 희망하는 국민대통합·정치쇄신 등은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어젠다"라며 "정진하겠다"(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고 말했다. /유주리기자 grace@

"잃을것 없는 20대 창업이 성공의 만루홈런 날린다"

美렌디오닷컴 CEO 기고

"경험 많은 기업가는 안타나 홈런을 칠 수 있지만 만루홈런 가능성은 오히려 경험이 부족한 20대 기업가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자영업자 대출서비스 렌디오닷컴의 최고경영자(CEO) 브록 블레이크는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에 "잃을 것이 없고 도전정신이 강한 20대 창업자들이 위대한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고 기고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각각 21세, 26세에 애플을 공동 창업했다.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나이도 25세에 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각각 20세, 22세에 MS제국을 일구기 시작했으며 마크 저커버그도 20세에 사업을 시작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정보기술(IT) 분야뿐만 아니라 세계적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도 26세부터 자신의 사업을 벌였다.

블레이크는 "집이나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압박이 없고 대학 기숙사에 살면서 인스턴트 식품만으로도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젊음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경험과 나이가 많은 기업가는 경영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배동호기자 elman@

제모습 되찾은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 황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된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석조전 본관 동쪽이 3일 내부 복원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12일부터 한달 두번씩 자율휴무 실시

둘째·넷째 수요일 쉰다

12일부터 주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평일에 자율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자율 휴무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 휴무를 실시하는 점포는 현재 지자체가 영업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의 점포가 해당된다. 12일부터 자율 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SSM 932개 등 총 1216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부터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상생 협력안을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지경위는 이날 대형마트의 휴무일 월 2회에서 월 3회까지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순기자 hclean@metroseoul.co.kr

내일 중부지방 최고 10㎝ 큰눈

추말까지 강추위 기승

수요일인 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5일 오전 발해만에서 이동한 저기압이 서해안으로 접근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날 오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3~10㎝, 강원도는 곳에 따라 15㎝ 이상으로 예상된다.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5~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7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목요일인 6일에는 낮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2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인 9일(-9도)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김유리기자 grace@

눈사람 만들기 3일 강원 춘천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방사능 걱정없다" 청호나이스 광고는 허위·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경쟁 사업자를 비방한 하이프리지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정했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를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을 뿐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프리지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살균방식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막상 단력을 비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박지원기자 pjw@

도루묵 낚는 강태공들 3일 강원 강릉시 영진항 방파제에서 강태공들이 낚시와 통발을 이용해 산란을 위해 연안을 찾은 동해안의 겨울 별미 도루묵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한사람이 쓰는 평생의료비 1억원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계청의 생명표를 바탕으로 국민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평생 1억 1000만여 원을, 남성은 9500만여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이유는 기대 수명이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이다.

연령별 의료비는 생후 1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성인기에 이르러 늘어나고 사망 이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생애 의료비의 47%, 여성이 52%를 65세 이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1인당 생애 의료비는 남성이 3억여 원, 여성이 3억3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1인당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에 걸맞는 의료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지적했다. /채신웅기자

엉터리 보험특약 '수술'

자아보험 가입하는데 연관도 없는 사망특약 끼워넣기 등 손질

앞으로 보험사들은 기본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특약 가입 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장 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해후유장해를 기본 계약으로 하고 암 진단 등 암 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돼 있지만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기본 계약만으로도 암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비주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 계약과 연관없는 특약 가입 의무화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기본 계약과의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 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장된 상품명도 금지

보장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꾼다.

이번대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칭에 '학원 폭력'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가 학원 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 대상이다.

휴대전화 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엉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 관련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모두 30종 상품의 기초 서류를 변경토록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 글·그림 박상현

영화 'ET' 개봉

1982년 오늘 미국 과학계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ET'가 개봉됐다. ET는 Extra Terrestrial의 약칭으로 외계인 이라는 뜻. 지구를 침략하는 험상한 어미지의 외계인과 달리 지구 어린이와 사랑스러운 우정의 교감을 갖는 내용의 ET는 개봉 3개월 만에 2억 원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스타워즈의 기록을 깨고 흥행사를 다시 썼다.

대선 공보물 발송 준비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는 5일까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朴 vs 文 오늘밤 첫 TV토론

8시부터 외교·안보 공방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첫 TV 토론이 4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외교·안보 분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한·미 FTA 등을 놓고 두 후보에 대한 공세를 취할 전망이다.

이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대선 판도의 승기를 잡기 위한 최대 승부처로 예상돼 각 후보는 사활을 걸고 있다.

박 후보는 최대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문 후보는 국정 운영 경험을 내세우며 박 후보를 향한 '현 정권 공동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희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 서울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편집인	남 궁 호
사회 편집인	김 환 학
광고국장 직대	김 완 필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92

安의 文지원 어디까지?

SNS론 무한 선거운동 가능…오프라인으로는 선거법 따질 일 많아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인정함에 따라 강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포함한 '안철수식 지원' 가능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전 후보는 SNS에서 가장 자유롭게 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 확인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안 전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지지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 범위는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안 전 후보는 개인 자격으로 거리 유세(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나 후보자 지지 연설방송 등에 나설 수 있다. 즉 시장이나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에게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마이크 등을 사용해 집회 형식으로 문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3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마친 후 박선숙(왼쪽) 전 공동선대본부장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문 후보 측이 제공한 유세차량이나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반면 안 전 후보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모임에서는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후보식 선거운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초청 강연 등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발언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시간 앞에서도 페덱스는 단연 최고입니다

오후 6시까지 연장된 픽업 접수 마감 시간으로 비즈니스가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페덱스만의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로 발송물과 발송 서류를
보다 여유롭게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페덱스

페덱스라면 가능합니다

fedex.com/kr 고객서비스팀 080 023 8000

북, 발사대에 1단 로켓 장착 10일 이전 준비 완료 전망

14~15일 발사 유력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1단 로켓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이 발사대에 1단 로켓을 장착했다"면서 "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는 1~3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2~3단 로켓까지 모두 발사대에 기립시키는 데에는 3~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발사 예정일인 10일 이전에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발사 시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7일 2~3일 전인 14~15일 시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게다가 이때는 제18대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사실만을 항공고시보를 통해 간단히 알린 상황이다.

이 항공고시보를 분석한 결과 1단 로켓은 지난 4월 발사 때(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보다 20km 정도 아래 지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낙하 예상지점(필리핀 동쪽 190km 공해)은 4월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의 사격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돼 우리 군 당국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서해로 배치했다. /채은호기자 e.asan@metroseoul.co.kr

홀가분한 총장 난감한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퇴임식을 마친 뒤 활짝 웃으며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왼쪽). 같은 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 얼굴을 굳게 다문 채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또 터졌다…이번엔 '알선검사'

매형 근무 법무법인에 사건 알선혐의 중앙지검 압수수색

대검 감찰본부는 비위 혐의가 포착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7)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당시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성추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알선 검사' 의혹과 관련,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검찰의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의사 A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매형이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던 김모씨만 따로 놀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김씨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채은호기자

문화바우처 커피타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문화바우처와 함께하는 커피타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바우처를 사용 중인 회원들이 모여 나눔티켓 이용, 이벤트 참여 등 카드 사용 정보를 교환했으며, 위원장에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metro global

metro Mexico

metro HongKong

《寒戰》劇

중국서 영화 '콜드 워' 가 현실로

홍콩에서 인기를 끈 영화 '콜드 워'와 같은 경찰 비리 사건이 중국 선전에서 발생했다. 최근 20대 경찰관이 강도범 추격전 끝에 사살한 용의자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8일 경찰은 "수사 결과 사살당한 사람이 사건과 무관하고 담당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종결됐으며 중인간 리처이문의 공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부성, 유가령 주연의 '콜드 워'는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음모 등을 그린 액션 영화다.

metro France

Le come-back de Burger King

버거킹 15년 만에 프랑스 '귀환'

맥도날드의 활기에 브랜드의 맥이 끊겨 프랑스를 떠났던 버거킹이 15년 만에 다시 상륙한다. 르 트로 파리는 그동안 루머로 떠돌던 버거킹 귀환이 공식 확인됐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먼저 재상륙하는 지점은 남부 마르세유의 프로방스 공항과 남부 생스 생피뉴 고속도로 휴게소로 결정됐다. 이 지점들은 여행객 외식 산업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인 오토그릴이 관리할 예정이다. 오토그릴은 1992년부터 버거킹의 파트너 회사로 일해온 이탈리아 기업이다.

metro Chile

Este año el Viejito Pa enviará cartas a los n

"산타 할아버지 편지 고마워요"

어린이 대상 서비스

"올해 착한 일 많이 했니 귀염둥이?"

웹사이트 '산타 편지'를 통해 수천 명의 칠레 어린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의 편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산타 편지'의 영업부장 로드리고 아라세나는 "편지를 통해 칠레 어린이들에게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라세나는 이어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물만 있고 사랑은 사라져 가는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되찾아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편지는 네 가지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편지에 들어가지만 편지 내용은 고정돼 있다.

아라세나는 편지 내용과 관련, "이야기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등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심리학자의 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를 받는 어린이들이 색다르고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산타 편지'는 14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으며 가격은 5490칠레페소(약 1만2400원)다.

/안드레아 사플레다 기자
정리=조선미 기자

"의사 속여도 말은 못 속여"

멕시코, 말 이용한 심리치료 화제…"스킨십·대화 나누다 보면 편안해져"

살아있는 말을 이용한 심리치료법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메트로 멕시코시티 최근 보도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말을 활용한 심리치료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4000년 이상 인간과 함께 살아온 말과 함께 소통하면서 각종 중독, 의사소통, 리더십 등의 문제를 치유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말 심리치료는 멕시코시티 기마경찰대에서 30마리의 말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가능해졌다. 말을 활용한 심리치료 전문가인 타니네즈허르를 만나 말 심리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말 심리치료법이란

목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말과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말을 타지는 않는다. 중독 증세, 섭취 장애, 의사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빠른 치유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4000년 이상 인간과 함께 살아온 말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신체언어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말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의사를 속일 수는 있지만 말을 속이진 못한다.

▶이 치료법이 환자에게 좋은 점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원하지 않는 감정을 말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이때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예를 들어 눈물을 보이면 이 사람이 왜 우는지에 집중하는 인간과는 달리 말은 눈물 자체에 반응하며 함께 슬퍼한다. 이런 과정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자에게 큰 치료 효과를 가져다준다.

▶얼마나 치료해야 효과를 보이는가

사람과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8회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 치료를 받고 싶다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단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 방법으로 치료하기 힘들다.

/카를라 바움가르 기자·정리=이국명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페루 산모사망률 OECD평균 10배
- 16년전 사망한 형수가 살아왔다?
- 버려진 컨테이너 아파트로 '변신'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복지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세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도와드립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복지법률 관련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발굴 · 지원 및 상근변호사 직접 상담
- 복지관련 정책·제도 개선

대 상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
▶ 복지관련 법, 제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분 야 ▶ 복지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검색창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을 검색해보세요!

국번없이 1644-0120

http://swlc.welfare.seoul.kr

KOSPI: 11/27 1925.20 · 11/28 1912.78 · 11/29 1934.85 · 11/30 1932.90 · 12/3 1940.02 (+7.12)

KOSDAQ: 11/27 493.63 · 11/28 494.48 · 11/29 496.73 · 11/30 499.37 · 12/3 498.97 (-0.40)

Nikkei (일본) 9458.18 (+12.17)
Hang Seng (홍콩) 21767.85 (-262.54)
Shanghai (중국) 1959.27 (-20.35)
Dow Jones (미국) 13025.58 (+3.76)

EXCHANGE RATE	
달러	1083.00
엔(100)	1315.60
유로	1411.91
위안	173.88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금호건설의 벽화거리 조성

낡은 골목길에 '따뜻한 예술' 그리다

건설사들이 주택 개보수 사업, 사랑의 집 짓기 등 건설업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금호건설은 평범한 골목길을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꿈 그린 어울림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벽화거리 조성 프로젝트는 민·관·사 체계를 연계해 지역의 낙후된 공간이나 건물(학교)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작업을 통해 아름답고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다.

꿈 그린 어울림거리는 지금까지 송파동 개미마을과 시흥동 금천초등학교,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까지 총 3군데에 조성됐으며, 대기업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호건설은 그밖에도 사랑의 집짓기, 사랑의 연탄 나르기, 1사 1촌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테마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각 팀과 사업장별 사회공헌 리더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서민만 돈가뭄

불황탓 은행·기업에 쌓인 자금 제대로 안돌아

개인과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통화자금이 흐르지 않고 은행 창고나 기업 곳간에 쌓이고 있다. 은행과 기업들이 돈맥경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권 수신 잔액은 1298조593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29조750억원이 늘었다. 특히 계좌당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계좌의 경우 519조7720억원, 14만6480개 계좌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말(506조3820억원)보다 2.6%, 계좌수(13만4810개)로는 8.7% 증가했다. 자금 순환의 펌프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서 가장 먼 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은행이 돈을 쥐고만 있으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곳간에도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시설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4조1000억원이 넘는 현금(현금성 자산 포함)이 늘었다. 현대자동차도 올 9월 말에는 7조4716억으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줄이면 성장동력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기자 (이메일 주소 판독 불가)

희망책 나눔행사 예스24는 1일과 2일 주말 동안 전사행 생지점에서 희망 책 나눔 행사를 열었고 2000여명 가량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행사를 마쳤다. 모금한 3000만원의 기부금은 희망학교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2012 희망트리 캠페인은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에서 25일까지 계속 된다. /김지성기자

국내 체크카드 수수료 외국보다 더 높아 폭리

국내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가 외국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연간 이용액이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 나올 정도로 체크카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 등 카드사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5~1.9% 수준이다. 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 캐나다는 0.2%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대 8배 높다.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카드사의 리스크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폭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상장사 몸집 줄이기 합병 늘고 분할 줄어

최근 3년간 상장사들의 합병공시 건수는 증가한 반면 분할공시는 감소했다.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을 키웠던 기업들이 체중 감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가 2010년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상장법인의 '회사합병 및 분할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합병공시 건수는 지난 2010년 26건→지난해 38건→올해 4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합병공시는 2010년 대비 69.23%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분할공시 건수는 19건→13건→14건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 올해 분할 건수는 2010년 대비 26.32% 줄어들었다. /김지성기자

2~3인용 맞춤 아파트 인기

당산동 더블역세권 위치 '계룡리슈빌' 선착순 분양

소가족을 위한 아파트가 부족한 가운데 2~3인용 소형 평형대로 특화된 '영등포역 계룡리슈빌'이 분양 중이다.

당산동 영등포 구청역 계룡리슈빌은 ▲더블 역세권(2·5호선 영등포구청역 189m) ▲주형단지 전세대 소형 설계(6개 동 441세대·17~21평형) ▲지가 상승으로 인한 노후 및 공급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공급(서울 도심 역세권 안근 2~3인 가족 대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울시 평균 전세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 대비 평형 설계(평균 전세가에 준하는 가격 대비 평형설계) ▲2~3인 가족 거주에 최적화된 콤팩트한 주석 설계(불필요한 시설 공기을 줄이고 실거주 공간 최의 설계) ▲세대 내 면적을 늘리는 신평면기술(공급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 98%)이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시 여의도, 서울 성서장 목동 2개 정거장에 위치하며 강남까지 20분대로 환승 없이 출퇴근 가능하다. 아울러 자가용 이용 시 올림픽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진출입도 5분 내에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은 영등포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800m 내에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IFC 몰,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3.3㎡당 1650만원이다. 총 441세대 중 292세대를 동·호수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문의 02)2671-0034 /김서성기자

해외 경험 돈 들이지 마세요

대학생 봉사단 모집 봇물

비용부담 없이 스펙 쌓고 저개발국 도움 값진 보람

"취업하려면 해외 경험도 있어야 하는데 비용은 어쩌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무료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도움을 받아 비용 부담 없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한국YMCA와 KB국민은행은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9기를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1개월 동안의 국내 활동 후 5개월 동안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7개 국가에 파견된다. 6일까지 라온아띠 홈페이지(www.raonatt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굿네이버스도 7일까지 32기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원을 뽑는다. 파견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년간으로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케냐 등 10개국이다. 왕복항공비 주거비, 현지 정착비 등은 전 비용으로 지원한다. 봉사단원 희망자는 홈페이지(www.goodneighbors.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e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하나은행 역시 와삭바삭 글로벌 대학 & 원정대를 뽑는다. 주어진 미션 수행과 경쟁 PT 등을 통해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되면 해외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퍼런스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 인턴 모집 및 채용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1일까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은 9일까지 지구별 꿈 도전단 1기를, 진에어는 13일까지 지니에디터를 모집 중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번주 채용기업

emart 이마트

국내 대형마트 '원조'…중국시장도 진출

1993년 국내 최초의 할인점인 이마트를 오픈하며 쇼핑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이마트는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국 유통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

월마트코리아 인수와 중국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통 본업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이마트의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모바일 사업(MVNO) 경력사원을 뽑는다. 모집 분야는 요금제 기획 및 판매정책 수립, 단말기 운영, CS센터 및 개통 관리의 3개 분야이며 3~5년 이상의 관련 경력자면 지원 가능하다.

입사 희망자는 4일까지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job.shinsegae.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1위
2위
3위
4위
5위

인터파크 이 주의 추천 도서

새해 승리의 필살기 '코브라 트위스트'

트렌드 코리아 2013
김난도, 이준영 외/미래의창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교수가 소비 트렌드 분석가로 다시 돌아왔다.

그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소비문화와 행동을 분석하여 내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한다. 빠르고 치열하게 변해가는 사회에 대처해야 할 소비자교서의 기술과 마케팅 측면을 제공하는 책으로 2007년부터 매년 이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했다.

2013년 키워드는 코브라 트위스트(COBRA TWIST)다. 저자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면글 소비자들도 자신만의 필살기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2013년 키워드를 '코브라 트위스트'라는 주제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책은 다가올 2013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대비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태도가 확산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기발한 감성과 상상이 만든 난센스에 열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화제의 신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엘도라도

정의, 행복에 이어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꼽히는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믿음과 종교적 육체를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찰한다. '죽음'을 테마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이야기하며 "죽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7년 후
기욤 뮈소/밝은세상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잘나가는 작가 기욤 뮈소의 2012년 최신작.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와 역동적 스토리,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영화적 긴장감,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문체, 대중적인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문화 코드 등 뮈소 특유의 스타일은 여전하다. 이미 프랑스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팔렸으며 40개국에 출간될 예정이다.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교육로드맵
이신애/알에이치코리아

엄마들의 공부 멘토 '잠수네'가 14년간 검증해온 국영수사과 질승의 공부법과 시험 대비 전략을 공개한다. 변화무쌍한 교육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부의 진수와 지도법을 총괄라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를 강요하기보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올로드맵과 학습을 뒷받침해줄 독서법 등 학부모로서 들러선 안 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속 시원한 만남

싱어송라이터 윤건의 따뜻한 북콘서트 초대

공간, 사람, 이야기가 따뜻하게 피어나는 윤건의 두 번째 에세이 '커피 윤건' 출간을 기념하여 싱어송라이터 윤건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일시: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청담동 스테이지팩토리홀

비스킷 신간(eBook)

깊은 상처 넬레 노이하우스 / 북로드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 세 번째 작품 '깊은 상처'의 막오르가 시작됐다. 시리즈 중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직전 이야기인 이번 작품에서는 독일 미스터리 스릴러의 개성과 매력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왜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워드 진 / 일상이상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하워드 진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내놓은 잘못된 정책을 베트남·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보여준 비극적인 행동을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노동자의 역할 등을 날날이 파헤친다.

이 주의 특가 도서

50인의 예술가 세트
미술문화 편집부/미술문화

문학예술6개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예술가를 집대성했다. 사진작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예술사 흐름에 기여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예술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판매가: 7만8000→3만9000원 (50% 할인)

포 아워 바디 티모시 페리스/갤리온

세계적 베스트셀러 '4시간' 저자 티모시 페리스가 20여 년간 일반인 남녀 194명의 실험으로 검증한 혁명적 건강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 내는 원칙을 담았다.

판매가: 2만8000→1만4000원 (50% 할인)

전문 호텔리어·외식 전문가의 요람

호텔과 서비스, 외식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텔외식산업과 관련된 직종들이 유망 직업으로 부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호텔리어, 소믈리에, 커피 전문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 21세기 유망 산업의 전문가를 키우는 곳.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 이은용 학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희'라는 브랜드 자부심

"아마 호텔 및 외식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텔 산업은 경희'라는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1975년 '경희호텔전문대학'이 생긴 이래 그동안 많은 관련 학과, 대학들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 누가 깨려고 해도 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희의 브랜드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곳이 바로 경희사이버대학교입니다."

그 전통은 화려한 교수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호텔 및 외식 산업에서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교수진은 물론,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 전문가들은 각종 특강,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담당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의 교수진은 '조화로우며 탁월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다.

◆호텔, 외식, 서비스, 창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학문

"우리 학과는 호텔&리조트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정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식, 와인, 커피 등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영역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는 크게 호텔경영과 외식경영으로 전공 과정이 구성돼 있다. 이은용 학과장은 호텔&리조트 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고 싶다면 '호텔 프로젝트 기획론', '호텔경영 분석' 과목을 꼭 들어야 한다고 추천했다. 호텔&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본 지식 이론부터 기획, 구상에 이르는 전문적 영역까지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호텔경영학과에는 호텔과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전업을 위해 학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아우르는 통섭 학문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 '외식창업론', '외식시장상권분석론'이란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권분석 같은 과목은 외식,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필수과목이죠."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는 호텔 산업과 관련한 기본적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식, 창업 등 각 분야별로 특성화된 과목들이 잘 짜여 있다.

◆배운 내용을 바로 현장에서 적용

"우리 학과 재학생 중 호텔이나 외식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죠. 학우들 간의 교류를 통해 트렌드와 새로운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지요. 업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교류 및 실무 중심의 학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경영학과에서는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특강을 실시한다. 호텔, 커피 전문가 특강, 외식 창업 특강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급호텔 탐방, 서비스 매너, 와인 체험학습 등 전공에 필요한 실습을 다양한 산학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외식 박사 취득의 지름길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에는 '호텔외식MBA' 과정이 개설돼 있어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특강, 오프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학문의 권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역시 학부와 같은 전공 트랙을 두고 있다. 호텔&리조트 전공 트랙, 외식&식음료 전공 트랙을 둬 학부의 전공 과정과 연계해 심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탄탄하고 촘촘한 교과과정은 대학원 개설을 준비하며 교육공학 전문가와 함께 1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이다.

특히 외식&식음료 전공 트랙은 외식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공 트랙으로 외식 창업 및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부 비전공자를 위해 외식 산업과 고객 행동 이해와 관련한 기초 과목을 이수한 후 외식&식음료 전공 트랙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해 비전공자 혹은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외식기업 창업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도 눈에 띈다. 레스토랑 창업론, 레스토랑 시설 및 디자인 관리, 서비스 경영론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해 외식업체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고 창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채림요기자 [illegible]

경희, 37년 전통 브랜드 파워 이어가는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현재 모집 중으로 이번달 12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 홈페이지 www.khcu.ac.kr/학부, 대학원(02)3299-8808, 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개설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영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수산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해외 유명호텔 등 현장학습

호텔경영학과는 해외 호텔 및 리조트 탐방, 특급호텔 현장학습 프로그램, 국내 호스피탈리티 기업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학생의 취업 교육·재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급호텔현장학습&OJT'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호텔 관련 실무 및 모의 면접 활동까지 다양한 실무를 익혀볼 수 있다.

또한 '외식업체 현장학습 & Executive Chef 특강'을 통해 소자본 레스토랑 창업 및 운영, 음식 서비스 및 조리 관련 현장 방문 학습을 제공한다. 이로써 직장인 재학생의 창업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와인을 주제로 와인&갤러리 프로그램도 실시된 바 있으며 일본 사케공장 및 맥주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세계적 커피 전문가 특강도

호텔경영학과에서는 특성화 교육으로 유명 인사를 초청해 커피 특강을 연다. 지난 5월에는 현재 CCA(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SCAA(전미스페셜티커피협회)와 CQI에서 사용하는 커핑 포인트를 창안했으며, 커피에 대한 정확한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커핑의 마스터'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케네스 데이비즈를 초청해 특강을 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커피 재배 및 그린빈(Green bean) 분야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주)커피휘트의 김은상 대표 특강도 이뤄졌다.

두려움 버리고 도전 DNA 깨워라

美 캐시백사이트 엑스트라벅스 20대 공동대표 노아 아워핸 방한

소셜커머스가 국내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는 요즘 미국에선 캐시백 사이트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캐시백사이트는 입점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보통 제품가의 4~11%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줘 알뜰족들이 즐겨 찾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직구'(직접 구매)하는 우리나라 네티즌이 늘면서 국내에도 이베이츠, 미스터리베이트 같은 캐시백 사이트가 알려지고 있다. 그중 '엑스트라벅스(www.Extrabux.com)'는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30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를 맺고 있다. 타 업체보다 적립률이 높아 등장한 지 6년 만에 거래액만 6조5000억원에 달하고 60여 개 국가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놀랍게도 엑스트라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20대 청년들이다.

엑스트라벅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아 아워핸(25)이 최근 국내 진출을 모색하려 방한했다. 그는 한국 고객들이 일주일에 50%씩 급증하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실패한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지화 전략도 고민하고 있었다.

청년 창업의 기세가 한풀 꺾인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젊은 CEO의 패기는 자가운 새벽 공기처럼 신선했다. 한때 54.5%에 달했던 우리나라 청년 벤처 CEO 비중은 지난해 19.5%로 주저앉은 실태다. 한국 대학생들이 창업보다 대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던 그는 "Not be scared. Just dive in(두려워 말고, 뛰어들어라)"이라고 외쳤다.

-한국 시장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몇 달 전만 해도 100명이던 한국 회원수가 조만간 1만 명을 뛰어넘을 것 같다. 한국 소비자들에 이렇게 호응을 얻을지 몰랐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사가는 제품들이다. 건강식품과 패션 뷰티 사이트를 즐겨 찾지만 호텔 숙박과 같은 관광상품은 제일 많이 산다.

> 한국 소비자 호응에 놀라 회원수 곧 1만명 넘을 듯 현지화에 공을 들이겠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쇼퍼들인 만큼 한국에 진출한다면 현지화에 공을 들일 생각이다.

-창업 후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 같은데

대학 졸업을 하던 2008~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구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극복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케팅 비용이 없어 대신 정보를 수집했다. 어떤 요일에 제품이 가장 싸고, 소비자 성향은 어떤지 분석한 보고서를 블로거와 미디어 그룹들에게 제공해 신뢰를 쌓았다. 아주 영리하고 용감하게 대처했다.

-한국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른 기회를 찾기 힘든 구조라 청년 창업 문턱이 높다

미국에서도 창업 첫 2년 동안 80%가 실패한다. 그러나 도전해야 한다. 실패해도 더 많은 걸 배울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시작하면 교과서 밖 세상을 더 빨리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길이 열릴 것이다. 미국처럼 창업을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창업가의 자질을 꼽는다면

도전정신과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제일이다. 비전을 만들어 직원들을 이끄는 영향력도 필요하다. 한국 대학생들이 재벌 기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해 놀랐다. 내가 작은 회사를 만들어 크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자랑스럽지 않나.

/정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사진/ 손진영기자 son@

■ He is...

미국 캘리포니아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룸메이트였던 제프 놀스(24·현 엑스트라벅스 공동대표)와 교내 창업 콘테스트에 출전해 우승 상금으로 받은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로 엑스트라벅스를 설립했다. 2009년 미국 ABC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소개돼 구글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해찬들 고춧가루' 농약 검출

CJ제일제당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인 '터부코나졸'이 해찬들 제품을 포함해 영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터부코나졸의 국내 허용기준은 5ppm 이하로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3일(2012년 8월 14일 제조)로 표시된 해찬들 두 제품과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2일인 햇님마을 고춧가루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효순기자

What's New shopping

현대H몰에 여성의류몰 '금찌' 입점

현대H몰이 여성 패션 쇼핑몰 점유율 2위업체인 '금찌'를 입점시켜 언더웨어, 여성 의류 등 1000여 개 스타일의 상품을 선보인다. 금찌 론칭 기념으로 모든 상품을 15% 할인하고 상품에 따라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H몰은 지난 8월엔 여성 쇼핑몰 부문 1위 업체인 '스타일난다'를 입점시키는 등 유행에 민감한 20~30대 여성 고객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강화하고 있다. 문의 www.hyundaihmall.com

11번가 제주 노지 감귤 65% 할인

11번가가 오늘(4일)까지 시중 판매가 2만원대인 제주 노지감귤(10kg) 5000세트를 65% 할인된 6900원에 판매한다.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무착색 무코팅 무후숙 상품으로 당도가 높다. 문의 www.11st.co.kr

다리 아프면 정맥순환 장애 의심을

센시아 정 복용 병행 효과적

나이가 들면서 자주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다, 가렵고 치다 하지가 무겁고 피로하다"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정맥순환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맥순환장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리에서는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하지정맥류, 다리궤양, 종증수전 등이 생길 수 있으며 항문 주위에서는 치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맥순환장애 증상은 직업상 장시간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 올식 조절, 운동, 편한 신발 신기, 금연 및 음주 자제하기 등의 생활요법이 필요하다.

동국제약 센시아 정은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인 식물성분 정맥순환 개선제로 유럽에서 개발돼 국내에 도입된 새로운 약품이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용 1개월 이후 보행 시 통증, 둔통감, 경련, 감각 이상 등 정맥순환장애증상이 70% 이상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민지기자

서울~런던 하늘길 열렸다

영국항공, 14년만에 노선재개
"좌석 4등급→서비스 고급화"

서울~런던 하늘길이 14년 만에 열렸다. 영국항공이 서울과 런던을 잇는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영국항공 중동·아대지역 제이미 캐시디(사진) 총괄대표는 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석을 4등급으로 나누는 등 서비스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탑승객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석은 평상형 침대가 탑재된 뉴퍼스트 클래스, 클럽월드 비즈니스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프리미엄 이코노미), 월드 트래블러(이코노미)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서울~런던 노선 중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제공하는 회사는 영국항공이 유일하다.

일반 이코노미 좌석 왕복 항공권(공항세 등 제외)은 특별 판매가로 50만원 선, 정상가는 60만~70만원 수준이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일반석보다 75~50% [illegible] 가격이다.

제이미 캐시디 대표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비즈니스석 기내식이 제공되고, 좌석 사이 간격이 넓어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이나 장거리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아시아가 경제·정치·문화 등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아태 지역 노선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항공의 직항 노선 첫 항공편은 전날(현지 시간) 런던 히드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영국항공은 이 노선을 주 6회 운항키로 했으며, 기종은 '보잉 777-200ER'이 투입됐다. 영국항공은 영국 최대의 국제선 항공사로 75개국 150여 개 도시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라비다 '설광뮤지엄' 오픈 코리아나화장품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라비다가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코리아나 미술관에 갤러리형 팝업스토어 '설광뮤지엄'을 문 열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 참석한 라비다 전속 모델인 배우 김하늘이 라비다 트리플 파워에센스를 개봉하고 있다.

서남병원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 아카데미'

서울시 서남병원이 오는 11~12일 양일간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 지하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관절염, 치아 관리 등 질환 관련 교육과 함께 운동요법, 식이요법, 올바른 약 복용법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남병원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과 합병증 상태 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50명만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서남병원 공공의료단(02-6300-9008)으로 하면 된다.

/김민지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엄마가 뭐길래' 카메오 출연

방송인 **전현무**(왼쪽)가 3일 MBC 시트콤 '엄마가 뭐길래'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극중 김서형의 첫사랑이자 미 국방부 테러방지 단체의 비밀요원 역을 맡아 엉성한 엘리트 캐릭터를 소화했다. 앞서 KBS 아나운서직을 사퇴한 뒤 "시트콤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밝힌 그는 "배우 류승수가 형처럼 동료 같다고 칭찬하는 등 연기력은 발군이었다"며 자찬의 소감을 전했다.

3년만에 신곡 '함께라면' 발표

클릭지과이가 3년 만에 신곡을 내놓는다.

3일 소속사 플럭서스뮤직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싱글 '함께라면'을 발표한다. 이 노래는 2009년 발표한 리믹스 앨범(4.5집) '무조 비트' 이후 처음 선보이는 신곡으로 DJ 클래지가 작곡하고 호란이 노랫말을 썼다.

양악수술로 턱관절 고통 벗어

가수 출신 배우 **윤현숙**이 양악 수술로 예뻐진 외모를 뽐내 화제다.

최근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수술 후 가름해진 턱선을 갖게 된 윤현숙의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윤현숙은 3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오랜 턱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난 데다 멋진 외모까지 갖게 돼 만족하고 있다. 외모만이 아닌 마음도 아름다운 윤현숙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일본 팬미팅 ~ 한류스타 찜!

배우 **유승호**가 2일 도쿄에 위치한 일본청년관에서 첫 일본 팬미팅을 가졌다.

그는 "일본에 팬분이 계신 줄 몰랐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도 미완성인 배우"라면서 "더 당당한 모습이 되면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가 출연 중인 MBC 수목극 '보고싶다'는 현지 잡지 '한류피아'에서 '꼭 보고싶은 최신 한국 드라마' 부문 1위에 올랐다.

극과 극 연기… 캐릭터 한 뚝없죠

아직도 서은기역 여운 남아 '끼' 부리는 건 안 좋아해요

숏커트로 바꾸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모두 말려 고민중

그저 얼굴 예쁜 스타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다가가고 싶은 향기를 품은 여배우로 한 뼘 성장했다. 지난달 15일 종영한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의 여주인공을 열연한 문채원(26)에게선 연기에 대한 강단이 엿보였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 영화 '최종병기 활'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3연속 히트를 쳤지만 "연기 외에 끼 부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광고나 화보보단 연기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

#"송중기는 꾸밈없는 남자"

종영 후 2주일여 만에 인터뷰에 나선 문채원은 "빨리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그동안 촬영 중 군에 입대해 챙겨주지 못한 남동생과 만나고 휴식을 취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2주가 흘렀어도 캐릭터의 여운은 그대로였다. 극중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재벌가 후계자 서은기 역을 맡아 냉철한 모습과 순수한 모습 양극단을 오가는 연기를 펼친 그는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 모두 애정이 있지만 이번엔 각별하다"면서 이야기를 풀었다.

"상반된 두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역이다. 여주인공인 데도 조인성 선배가 했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남주인공 같은 느낌을 가진 배역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그동안 여배우라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의 한을 원 없이 풀었답니다."

배역의 테마으로 "서은기는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것도,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다"면서 "사람으로서나 배우로서나 순수함이 남아있을 때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기억을 잃은 강마루(송중기)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해피엔딩 결말도 마음에 쏙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강마루가 기억을 잃은 적이 없다는 나름의 견해를 내놨다. 비극적인 사랑을 끝내고 평범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기억을 잃은 척했다는 해석이었다.

한 살 위의 송중기와는 4개월간 촬영을 함께하면서 최측 친해졌다. 또래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 건 처음이었다는 그는 "극 자체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컷 소리가 들리면 배우들과 장난치고 농담하면서 즐겁게 촬영했다"면서 "송중기는 꾸밈이나 꾸밈이 없고 일관성이 있다"고 칭찬했다.

#"친구 같은 사람이 이상형"

'공주의 남자' 방영 초반 연기력 논란에 휩싸였던 일이 언제였는가 싶게 연기력과 흥행을 보두 잡으며 톱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보단 편 모습이었다.

"작품을 선택하면서 흥행이나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아요. 잘될 만한 작품을 하겠다는 마음도 없고요. 그저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뿐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할수록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벌써 차기작 구상에 한창이다. 송중기가 출연한 영화 '늑대소년'과 '공주의 남자'에서 함께한 박시후의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고 영화 욕심이 생겼다.

"종영 파티까지 마치고 녹초가 돼 있다가 부리나케 달려가 봤어요.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두 분이 극장에서 대결을 펼치는 걸 보니 휴미롭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 자극이 됐어요. 중기 오빠에겐 '늑대소녀' 같은 작품이 나오면 나도 한번 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후 오빠가 한 스릴러 장르도 꼭 도전해보고 싶답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민은 헤어스타일을 숏커트로 바꿀까 말까 하는 소소한 것들이다. 문채원은 "배우로 사는 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기도 한다"면서 "숏커트를 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려서 고민이다. 시후 오빠와 중기 오빠도 마찬가지라 역시 남자들은 긴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웃었다.

크리스마스에는 친구와 보낼 계획이다. 이날만큼은 비해 혼자 보냈다는 그에게 연애에 대해 묻자 잠시의 머뭇거림 끝에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드라마에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나면 실제 연애는 하고 싶단 생각이 뚝 떨어져요. 친구처럼 편하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탁진형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선열

'착한 남자'로 한뼘 성장
문·채·원

현아 앞세워 해외팬 잡는다

큐브엔터 소속 가수들 내년 대규모 투어

이자 국제가수 현아를 앞세운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내년 대규모 해외 투어에 나선다.

'2013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에는 현아가 소속된 포미닛과 월드투어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비스트를 비롯해 지나와 올해 데뷔한 신인 비투비·노지훈 등이 가세해 무대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다음달 26일 중국을 시작으로 2월 2일 서울과 21일 일본에서 공연한다. 각 가수들은 올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해 왔고 공연 개최 요청이 쇄도해 예정보다 빨리 해외 투어에 나서게 됐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첫 공연을 한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는 '판타지 랜드'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으며 일본에서도 1만 명을 동원했다. 12월에는 영국 런던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최초의 K-팝 합동 공연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큐브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특별한 무대로 세계를 향한 아티스트의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며 "향후 큐브 공식 채널에서 자세한 공연과 티켓 오픈 일정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취업난 '청담동 앨리스'·미성년 성폭행 '보고싶다'

현실 꼬집는 드라마 뜨나

현실의 사회문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첫 방송된 SBS 새 주말극 '청담동 앨리스'는 화려한 의류 회사를 배경으로 실력이 있어도 유학 경험이 없어 계약직으로 취업한 신입사원 세경(문근영)과 실력은 부족하지만 뛰어난 미모로 회사 사모님이 된 윤주(소이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취업난, 사회에 만연한 명품 선호 등의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앞서 MBC 수목극 '보고싶다'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이수연(윤은혜)과 가족들의 아픔을 밀도 있게 녹여내 최근 급증한 성폭행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켰다.

한동안 판타지 장르를 주로 소비했던 시청자들은 현실을 비추는 내

용에 공감하면서 호평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드라마의 시청률은 아직까지 10% 이내에 머무는 중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 사람들은 판타지보다 현실에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흥행을 위해선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는 안 되고 오락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아이돌 연애 '개방 스타일'

블락비 유권 팬카페서 교제 밝혀…슈주 신동은 방송서 여친 깜짝 공개

K-팝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들의 연애도 개방적인 스타일로 급변하고 있다.

최근 신곡 '닐리리맘보'를 발표하고 컴백한 그룹 블락비의 멤버 유권은 4살 연상인 24살 방송인 겸 모델 전선혜와 교제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유권은 2일 밤 블락비 팬카페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저보다 4살 연상의 모델 전선혜씨다. 제가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마다 제 옆에서 항상 큰 힘을 주고 다시 힘낼 수 있게 응원해준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놀라실 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한편 진실되지 않은 모습으로 웃고 다가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다. 또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자도 보호조치 못 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담담히 예정을 드러냈다.

전선혜는 2008년 케이블 채널 엠넷 '쿨 더 그루브'로 데뷔해 tvN '러브스위치' 등에 출연하며 얼굴

유권·전선혜

신동

선예

을 알렸다.

이에 앞서 원더걸스의 선예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사실을 알리고 팬카페에 심경을 적었다. 그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며 나눴던 것처럼 1월 26일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며 담담하게 연인과 팬들의 사랑을 모두 챙기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현재 한창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 멤버가 묻기도 전에 교제나 결혼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선예는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제 사실을 먼저 밝힌 바 있으며 슈퍼주니어의 신동도 2010년 방송에서 여자친구를 깜짝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파격적인 변화에 팬들은 놀라고 실망했다는 반응도 보이지만 대체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세대가 변할수록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해 가고, 소속사도 인격적인 차원에서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팬 문화도 함께 성숙해진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성 문제는 인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보영 MC도 꿰찼다…'위대한 유산 아리랑' 진행

대세 박보영이 영화 흥행 대박과 예능 출연에 이어 생방송 MC까지 거머쥐었다.

그는 6일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위대한 유산 아리랑'에서 이성배 아나운서와 공동 MC를 맡는다.

박보영은 "아리랑의 의미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특별 기획된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해 기쁜 마음으로 데뷔 후 첫 MC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연을 맡은 영화 '늑대소년'이 650만 관객을 기록한 데다, 직접 부른 OST '나의 왕자님'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등판하면서 충무로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는 3일 방송된 '공감토크쇼 놀러와'에서 숨겨진 입담을 과시한 데 이어 생애 첫 MC 도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여의도에서도 눈도장을 톡톡히 받을 예정이다.

/전효들기자

10년만에 웃기러 돌아왔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쓰리제이家의
엘리트사위 내쫓기 프로젝트!
코믹명家의 후계자 쟁탈전
가문의 귀환
가문의 골칫거리는 과감히 퇴출! NEW 에이스는 화끈하게
12월, 역대 최강 코믹가문 탄생!
정준호 · 김민정 · 유동근 · 성동일 · 박근형 · 박상욱 · 윤두준 · 정광희 · 유인 · 손나은 · 왕석현 · 유혜정 감독 정용기
Daum 가문의 귀환
twitter.com/lotte_ent
facebook.com/lotteent.movie
www.gamun5.co.kr

'레미제라블' 배우, 몸무게와의 전쟁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요 출연진이 외모 변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 장발장 역의 휴 잭맨과 밑바닥 여인 판틴 역의 앤 해서웨이는 무려 11kg의 체중을 각각 불리고 뺐다. 촬영 초반부 갓 출소한 장발장의 초췌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36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을 만큼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잭맨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살을 다시 찌워 '고무줄 체중'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반면 해서웨이는 5주 만에 11kg을 감량하고 삭발에 도전했다.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을 단숨에 싹둑 자른 그는 "고생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혀 작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자신의 미모를 헝클어 망가뜨린 배우도 있다. 뮤지컬 '서신' 느낌의 가발을 착용한 헬레나 본햄 카터다. 판틴의 딸 코제트(아만다 사이프리드)를 하녀처럼 부리는 여관 주인 테나르디에 부인으로 나와 탐욕스럽고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다.

한편 이 작품은 원작 뮤지컬의 프로듀서인 '뮤지컬의 제왕' 캐머런 매킨토시가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헬레나 본햄 카터

'타워링' 35년만에 재개봉

할리우드 재난영화 장르를 대표하는 '타워링'이 지난달 30일 서울 허리우드 실버영화관에서 35년 만에 재개봉됐다고 극장 측이 3일 밝혔다.

6일까지 상영될 이 영화는 고층빌딩 화마에 맞서는 인간들의 사투를 그려 '25일 개봉될 '타워'의 원조로 평가받는다. 문의: (02)3672-4231

하우스 호러의 정석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헤이츠

로렌스 내공깊은 연기 '주목'

오래전 숲 속 외딴집에서 일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 세월이 흘러 이웃집에 이사 온 소녀 엘리사(제니퍼 로렌스)는 엄마 사라(엘리자베스 슈)의 만류를 무릅쓰고 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어쩌면 용의자일지도 모를 소년 라이언(맥스 티에리엇)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면서 괴이한 일을 겪게 된다.

6일 개봉될 '헤이즈'는 전형적인 하우스 호러 스릴러다. 음산하기 짝이 없는 집을 둘러싸고 엎치락뒤치락 반전이 거듭된다.

이 과정에서 집이 강조되면 오컬트 호러로, 살아있는 인간이 부각되면 사이코패스 스릴러로 각각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올 여름 공개됐던 '캐빈 인 더 우즈'처럼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해, 아니 호러의 온갖 컨벤션을 한데 섞을 수도 있겠지만 '헤이즈'는 비교적 상식에 가까운 하나의 길을 안전하게 선택한다. 이 주 혁신적이진 않지만 오히려 익숙한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르와 내용만 놓고 보면 그리 새로울 것 없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주인공 엘리사를 연기한 제니퍼 로렌스다. 올해 22세로 동갑내기인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해리 포터' 시리즈의 엠마 왓슨과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는 그는 '버닝 플레인'과 '윈터스 본'으로 베니스를 비롯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쓴 데 이어, 지난해부터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와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으로 높은 상품성까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의 캐스팅 0순위로 발돋움했다.

로렌스는 첫사랑에 들뜬 소녀의 값없는 여전사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친다. 극의 시작과 끝을 홀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자칫 놓치기 쉬운 미세한 심리 변화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20대 초반의 여배우치곤 내공이 은근히 깊다. 여배우의 힘이 지나치게 무난해질 법한 영화를 살린 사례로 남을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로미오 + 줄리엣
青春版
ROMEO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2.18 – 29
JULIET
국립극장
Interpark

대중음악과 순수예술 그 만남을 즐겨볼까요

세종문화회관 제야음악회 두차례 열려

대중음악과 순수예술이 적합한 대규모 무대가 올해 공연가 대미를 장식한다.

매년 마지막 날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사했던 세종문화회관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실력파 대중가수와 무용단·합창단·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12 세종문화회관 제야음악회'를 마지막 날인 31일 대극장에서 두 차례 개최한다.

이소라

첫 번째 공연 '고맙다 2012'에서는 20~30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 솔로 가수 이소라, 음악으로 소통의 창을 여는 뮤지션인 루시드 폴, 깊은 감성과 빼어난 가창력으로 무장한 남성 듀오 바이브가 출연한다.

이적

최근 중·소극장에서 주로 공연했던 이소라는 국내 최고 음향시설을 갖춘 3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라이브의 진가를 전한다. 루시드 폴은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협연한 무대도 준비한다.

'반갑다 2013'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공연에서는 이소라가 다시 출연하며, 작곡가·가수·영화 음악감독·방송인으로 맹활약하는 정재형이 출연한다. 그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기타리스트 이상순과 함께 특별 무대도 꾸민다. 또 최근 MBC '나는 가수다2'를 통해 진가를 드러낸 이정이 폭넓은 음악 세계를 무대에 펼쳐낸다.

이외에 서울시무용단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다양한 관객을 아우르는 음악을 선사한다. 문의: 1544-1813

/유순호기자 suno@

나눔이 흐르는 뮤지컬 '어쌔신'

토니어워즈 5관왕이 빛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어쌔신'(내년 2월 3일까지·두산아트센터 연강홀)이 4일 공연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에 기부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문화 나눔 도네이션'의 일환으로, 국내 소외계층을 초청하는 무료 공연과 유료 관객 수익금을 100%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배우·스탭 등이 노개런티로 참여하고, 두산아트센터는 극장 대관료를 받지 않아 가능했다.

'어쌔신'은 1800~1900년대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스티븐 손드하임의 대표작이다. 황정민이 직접 연출을 맡았고, 암살자 귀토로 출연한다.

황정민은 "이번 도네이션 행사는 '우린 모두 행복해지길 원해'라는 우리 작품의 취지와도 들어맞다"며 "공연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의: 02)6925-5600

/김민준기자 mkim@

뮤지컬 스타들 한자리 모인다

'핫앤뉴뮤페' 12일 개최
윤영석 등 40여명 출연
티켓·경품 증정 행사도

윤영석 박은태 김재범

뮤지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12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핫앤뉴 뮤지컬 페스티벌'(핫앤뉴뮤페)에는 윤영석·이석준·홍지민·민영기·김선영·신영숙·김재범·리사·박은태·성두섭 등 40여 명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한다.

엠넷 '보이스 코리아'의 우승자 손승연, '드림걸즈'에 출연했던 개그우먼 안영미와 강유미도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드림 걸즈' '잭 더 리퍼' '헤드윅'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과 내년 개막을 앞둔 '살짜기 옵서예' '타이스' '뮤지컬 '써니' 등의 수록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주최 측은 행사에서 선보일 뮤지컬 넘버 10곡을 CJ E&M Musical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개했다. 리스트에는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위키드'의 '디파잉 그래비티', '헤드윅'의 '티어 미 다운', '풍월주'의 '밤의 남자' 등 뮤지컬 팬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노래들이 포함됐다.

이울러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를 투표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6일까지 진행한다. 투표한 뒤 그 넘버를 부르게 될 배우를 추측해 댓글에 적어주면 추첨을 통해 티켓과 경품을 증정한다. 문의: 1588-0688

/박준배기자 kjs0427@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리아주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3 What are you doing?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en.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시리즈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81. 당신은 뭐 하는 중이에요?
182. 저는 책을 읽는 중이에요.
183. 당신의 친구는 뭐 하는 중이에요?
184. 그는 내일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중이에요.
185.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81 What are you doing?
182 I'm reading a book.
183 What's your friend doing?
184 He's studying for the test tomorrow.
185 I'm not doing anything right now.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81~18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are you doing?
B I'm 책을 읽고 있는 중.

정답 reading a book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m reading a book / a magazine. What are you doing?
2 I'm not doing anything right now / at the moment.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With its lightweight and comfortable handle, the latest Apurage vacuum cleaner is _______ to carry.

(A) ease (B) easy
(C) easily (D) eases

02 Ovist computers are sold with the newest version of Deren software _______ installed.

(A) straight (B) yet
(C) already (D) even

01. 최신형 아퓨라지 진공청소기는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가 잡기 편해서 운반하기 쉽다.
해설 be동사인 is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B) easy를 써야 한다.
어휘 lightweight 무게가 가벼운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 ease 용이함, 편함
정답 (B) easy

02. 오비스트 컴퓨터는 데른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이미 설치된 상태로 판매된다.
해설 문맥상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적합하므로, '이미, 벌써'를 의미하는 (C) already를 써야 한다. yet은 의문문에서 '이미, 벌써'의 의미로 쓰이고, 부정문에서 '아직'의 뜻으로 쓰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어휘 install 을 설치하다 straight 곧, 똑바로 even 심지어 ~조차도
정답 (C) already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문장 속 억양 익히기

아무리 발음과 강세가 좋아도 문장의 높낮이, 즉 억양이 잘못되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말하듯이 자신감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을 올려 읽는 문장

be동사,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상대방에게서 Yes나 No 대답을 기대하는 문장으로, 끝을 올려서 읽습니다.

Ex. Are you interested in movies?↗ 영화에 관심 있으세요?
Can you call me back later?↗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열거된 뒤에서 올려 읽기

한 문장 속에 2개 이상의 단어가 연속해 나열되는 경우 and나 or 앞의 단어는 살짝 올려 읽고 마지막 단어는 내려 읽습니다.

Ex. We are having a clearance sale this Friday↗, Saturday↗ and Sunday↘.

문장 맨 앞에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 부사절 뒤는 올려 읽고, 문장 끝은 내려 읽습니다.

Ex. If you buy two cartons of milk↗, you will get a third carton absolutely free↘.

'독도 세리머니' 펼친 박종우 2경기 출장 정지·벌금 징계

징계 수준 가벼워 동메달 돌려받을 가능성 높아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가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비교적 가벼운 징계여서 FIFA에 항소할 수도 없다"며 "축구협회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2012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그라운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에 대해 일본축구협회는 '국제경기에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했고, IOC는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상벌위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지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FIFA는 이번 상벌위 결과를 IOC에 통보할 예정할 예정이며 IOC는 FIFA의 결정을 토대로 보류 조치된 박종우의 동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민준기자

K리그 시상식도 '서울 천하'

데얀 MVP 등 4관왕·'베스트 11' 5명 배출… 감독상엔 최용수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이 예상했던 대로 '서울 천하'로 막을 내렸다.

3일 열린 시상식에서 2년 연속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몬테네그로 특급 데얀은 올해 프로축구를 빛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최용수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고, FC 서울은 베스트팀으로 선정됐다.

데얀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116표 가운데 92표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올해 개인 최다 26골을 넣으며 개인 통산 141골을 기록한 라이언킹 이동국(전북)을 73표 차로 제쳤다. 역대 K리그 시상식에서 외국인 선수가 MVP에 오른 것은 2004년 나드손(수원)과 2007년 따바레즈(포항) 이후 3번째다.

데얀은 또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득점상, 판타스틱 플레이어 등 4관왕에 올랐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선수상은 5골6도움을 기록한 이명주(포항)에게 돌아갔다.

이외에 베스트 11은 골키퍼 이용대(서울)를 비롯해 수비수 아디(서울), 정인환(인천), 곽태휘(울산), 김창수(부산), 미드필더 이근호(울산), 황진성(포항), 하대성(서울), 몰리나(서울), 공격수 이동국(전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데얀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며 "동료들과 감독, 코칭스태프 덕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전경기풀타임을 소화한 김용대와 K-리그 최초로 6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쌓은 김병지(경남)가 나란히 특별상을 받았고, 울산은 페어플레이팀으로 뽑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3일 열린 2012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최용수(오른쪽) 서울 감독이 MVP를 받은 데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원준 음주 접촉사고 불구속 입건

고원준(23·롯데·사진)이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원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원준은 2일 오전 4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중 바로 옆을 지나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차량 일부가 찌그러졌을 뿐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여성 운전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고원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단속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경찰은 채혈을 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넘겨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고원준이 술을 마시고 길에서 차를 대놓고 쉬다가 다시 운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옆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준기자

기자들 울리고 웃겼던 '애증의 찬호'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박찬호가 옷을 벗었다. 팬들에게 박찬호의 은퇴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야구기자들에게 박찬호는 애증의 인물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뜨면서 박찬호 기사는 잘 팔렸다. 각 스포츠 신문사들은 특파원을 미국에 상주시켜 경쟁적으로 박찬호 기사를 게재했다. 아마도 그는 스포츠신문의 1면을 가장 오랫동안 독점했던 인물일 것이다.

기자들에게 낙종은 죽음과도 같았던 시절. 각 신문사는 박찬호 때문에 매일 희비가 엇갈렸다. 정보와 타이밍(속보)에 따라 소위 특종과 낙종이 뒤바뀐다. 일거수일투족 단신 하나도 놓칠 수 없었던 특파원이나 야구기자들에게는 고역이었다.

언제 어디든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니 박찬호도 힘들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사의 방향이 다르게 나왔다. 갈수록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줄어들었고 박찬호는 까다로운 취재원이 되어갔다. 사진기자들이 그라운드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가려 불만을 낳기도 했다.

2007년 11월 오키나와에서의 에피소드. 아카마 구장에서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전지훈련에 박찬호도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했다. 첫 훈련을 마치고 인터뷰가 시작될 즈음 갑자기 박찬호와 한 기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는 기자와 대거리를 벌일 정도로 거칠어졌다.

기자는 그때 박찬호가 속정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룸을 하게 기다린 다른 기자들에게 미안했던지 장장 1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인터뷰가 아닌 간담회를 마련했다. 기자들은 궁금했던 사항을 모두 질문했고 박찬호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답했다.

물론 다음에는 원래의 취재원 박찬호로(?) 되돌아갔지만 말이다. 엊그제 은퇴회견장에 운집한 야구기자들은 선수 박찬호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박찬호가 유니폼을 벗자 기자들도 짐을 함께 내렸다. 이~ 그런데 그 까다로운 박찬호를 다시 마운드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OSEN 야구전문기자